

‘지속가능한 미식 도시 전주’ 발전 방향 모색

전주시정연구원, ‘전주 음식산업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 개최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20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전주의 음식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주 음식산업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음식산업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포럼은 전주 음식산업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금기형(사)문화유산청의공간 대표는 ‘전주음식의 정체성 및 산업화·세계화 전략’을 주제로 전주음식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와 글로벌리더십 확보 전략을 제시하며, 전주가 ‘지속가능한 미식 생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영택 지역특화연구소 소장은 ‘미식산업 인프라 및 미식관광 콘텐츠’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전주의 음식문화와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미식관광 콘텐츠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하는 미식관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트렌트플라워 강화 △관광·교육 인프라 확대 △미식관광 벨트화 △JK-푸드 세계화 △지역 유통 전략 확대 등을 추진 전략으로 제안했다.



전주시정연구원은 20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전주의 음식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주 음식산업 미래비전 수립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에는 김남규 전북대학교 특임교수와 민동규 전주관광재단 사무국장, 오영호 한식진흥원 수석전문위원, 이우석 놀고먹기연구소 소장, 차경욱 서울특별시 중구청 경제관광정책협력관이 참여해 전주 음식산업의 산업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남규 특임교수는 음식 콘텐츠별 특화거리 활성화와 전주 시 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으며, 민동규 사무국장은 전주의 음식산업이 정책적 연계와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영호 연구위원은 전주 미식벨트 조성과 미식관광 전문기관 설립을 제

안하며 글로벌 표준화 및 차별화를 강조했다. 이우석 소장은 전통과 관광이 결합된 체험형 미식관광 모델을 통해 지역경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경욱 협력관은 전통을 기반으로 한 현대적 감각의 음식 혁신과 전문가의 지속적인 연구, 표준화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포럼에서는 강태안 동규 사무국장은 대표와 송호근 공주대학교 교수, 신동이 통일부장관실 비서관, 정명례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시완산지부장이 참여한 토론을 통해 전주의 미식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했다.

먼저 강태안 대표는 축제 중심의 구조를 넘어 상시 체험형 미식관광 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주주 체험·가뭇거리 투어·비건 코스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어 송호근 교수는 ‘정체성의 수호와 세계화의 균형’의 키워드로 정체성 인증 체계 구축과 전주음식 다양성의 브랜딩을 통해 전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미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이 비서관은 전주가 미식관광의 세계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와 사람, 참여형 콘텐츠의 유기적인 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주가 세계적인 미식도시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주 음식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주시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등 협력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축사를 통하여 “전주는 예로부터 한식의 본향이자 우리 고유의 미식문화를 가장 잘 간직해 온 도시이며, 이제는 전통의 가치를 넘어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전환, 지속가능한 미식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이 전통과 현대, 지역과 세계가 공존하는 미식 창조 도시 전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태조 이성계 오목대 잔치 행사

전주시, 25일 한옥마을 일원서 개최

조선왕조의 본향인 전주에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기 왜구를 무찌르고 승리를 나눈 역사가 재현된다.

전주시는 25일 오후 2시 오목대 등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2025 태조 이성계 오목대 잔치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약 700년 전인 1380년(고려 우왕 6년) 9월 태조 이성계가 남원 황산에서 왜구를 무찌르고 그 승리의 기쁨을 전주한옥마을 오목대에서 나누었던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한 전통문화 행사다.

이날 한옥마을에서는 △황산대첩 무예퍼포먼스(경기전 앞) △승전행렬(경기전~태조로~오목대)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오목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통무예, 판소리와 창작무용 등이 결집된 종합예술 행렬 퍼포먼스인 승전행렬의 경우 이성계와 이지란, 정몽주 등 주요 인물과 고려 병사, 풍물패, 고취대 등 1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기전 정문에서 출발해 은행로 교차점 한옥마을 입터를 거쳐 오목대에 이르게 된다.

/권희성 기자



이어 오목대에서 펼쳐지는 태조 이성계 전승기념 오목대 잔치는 고유제와 오목대 잔치 및 연희마당, 포토타임 등 다채로운 한(韓)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시는 관람객에게 행사에 대한 흥미와 전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기전 광장에 대형 스크린을 마련하고, 모든 과정을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할 예정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전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업적을 기리는 이번 행사를 마음껏 즐기시고 한국의 문화를 느껴보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전주시는 앞으로도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전통과 역사를 지키고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 청년협의체’ 출범

다양한 분야 청년 30명 위촉식·정례회의 가져

다양한 분야의 전주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주시 청년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전주시는 2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청년정책 관계자, 지역 청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청년협의체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청년들의 실질적인 청년정책 참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 자리에서 정책과 경제, 문화, 환

경, 인문,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위원 30명이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주시 청년협의체’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제25조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청년과 시장 간의 소통 창구 및 단체 간 네트워킹 △청년정책 자문 및 모니터링 △분야별 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홍보 △청년 주도 행사 기획·협력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다양한 분야의 전주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과 참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주시 청년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시는 이날 출범한 청년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례회의는 물론, 간담회와 토론회, 포럼 등을 추진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구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

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가결

전주시의회는 최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천서영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아동보호구역운영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유괴 등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

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실태조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사립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천서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세심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개척·마케팅 역량 강화 추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진)은 디지털커머스 전문가인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4분기 온라인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온라인 판로 지원 부분의 경우 △제품 소개페이지 제작 지원 △롯데온 ‘소담스퀘어전주’ 기획관 운영 △스튜디오 라이브커머스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은 온라인 입점과 판로 확대에 필수적인 제품 사진 촬영과 기획, 연출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소담스퀘어전주는 또 기존 우체국소품몰과 G마켓 입점 지원에 이어 이달부터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인 ‘롯데온’에 ‘소담스퀘어전주’ 전용 기획관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은 소담스퀘어전주가 보유한 전문 스튜디오를 활용해 정기적인 라이브 방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담스퀘어전주는 기획부터 촬영, 쇼호스트 섭외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경험하고 매출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소담스퀘어전주는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 △SNS 홍보단 운영 △온라인 판매·브랜딩 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도 함께 추진한다.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의 경우 소상공인의 대표 상품을 소비자 체험과 리뷰 형식으로 풀어낸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으로 제작해 다양한 SNS 채널에 확산시킴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SNS홍보단은 ‘로컬 트립(Local trip)’트렌드에 맞춰 동네 주요 관광지 내 소상공인 점포를 집중 홍보하게 되며, 소상공인이 스스로 온라인 채널을 구축하고 라이브 방송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